

화순군 첫째아이부터 월 10만원 양육비 지원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

♣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청년일자리 부족, 주거 및 양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만혼, 가임여성인식의 변화 등이지만 화순군 정책은 양육부담 경감 및 임신부 건강관리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나마 재정형편상 지원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 임신·출산 비용 및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둘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올려 지원하지만 출산장려금은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월평균 107만원)에 턱없이 못미치고 첫째아이에 대한 장려금은 없다.

화순군이 최근 마련한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지적인 출산·양육 대책의 문제점을 다.

또 주거 및 일자리 악화,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을 제기하지 못하는 지역민들이 많고 홍보도 미흡한데다, 분만전문병원이나 산후조리원 등이 없는 점 등도 화순군의 합계출산율(2016년 1.13명)이 전남 22개 시·군 중 21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출산 장려금 늘리고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도서관 등 갖춘 임신·출산·양육 지원센터 조성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화순군 분석이다.

◇아이 낳고 싶은 도시로=화순군은 17일 이같은 점을 반영, 출산장려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아이 2명은 기본인 가정 실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합계 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는 게 화순군 목표다.

화순군은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출산·양육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정착 ▲저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우)농심자 백신공장 증설, (우)포프리 화순식품단지 개발, 화순생물의약품산업단지·동면제2농공단지 분양 등으로 일자리 2982개를 만들고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구축, 동물대체시험센터 건립, 프라

운호퍼IZI 프로젝트 센터 건립, 국립백신·면역치료연구원 설립 등으로 생물의약품 인프라를 구축, 647개 일자리를 조성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와 협약을 맺고 250~300세대 규모의 청년주택(36~45㎡)을 건립해 오는 2021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출산장려금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군은 그동안 1년 이상 부모 모두 화순군에 거주할 경우 둘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모 중 한 사람만 거주해도 첫째아이부터 월 10만원씩 23개월을 지원한다.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술 비용을 기존 10차례 지원했던 데서 12차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화순전대병원 분만실 운영을 활성화하

기 위해 인근 보성·장흥·곡성군과 분만실 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오는 2020년까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도 진행키로 했다.

◇아이와 살고 싶은 도시로=화순군은 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 UN이 정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화순군은 또 유아전문 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키즈카페, 세일센터, 정보센터, 교육장 등을 갖춘 임신·출산·양육 One-Stop 지원센터를 201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명품 화순교육 실현 5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5개 분야 36개 사업을 추진,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중군 화순군수는 "아이와 부모, 교사가 행복한 참 보육을 실현해 오는 2022년까지 합계 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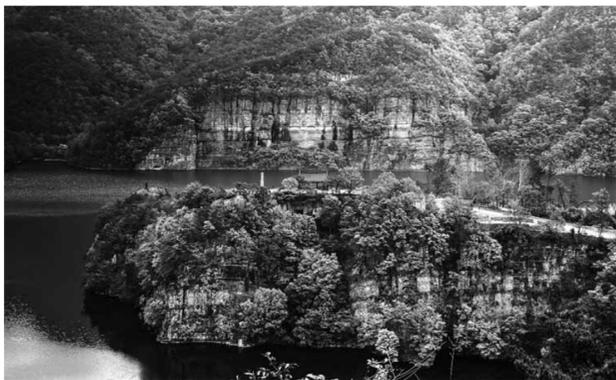
최근 개강한 대나무악기 연주자 양성교실 수강생들이 연주를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민 모두를 대나무 악기 연주자로

'연주자 양성교실' 악기별 초급과정 추가 모집

'지역민 모두를 대나무 악기 연주자로!' 담양군이 최근 '대나무악기 연주자 양성교실'을 열고 연주자 양성에 나섰다. 대나무 연주자 양성교실은 대나무 고장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군민 누구나 대나무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했다. 군은 매년 대나무악기 연주자 80여명을 양성한 바 있다.

담양군은 오는 26일까지 악기별 초급반을 추가로 모집(대금 5명, 피리 10명, 단소 5명)할 예정이다. 담양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대나무악기 연주를 통해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적벽 전경. 화순군은 오는 3월부터 적벽 투어를 재개한다.

<화순군 제공>



구중군 군수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적벽 버스투어' 3월 24일 재개

화순 적벽(赤壁)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가 올해 3월부터 운영된다.

화순군은 오는 3월 24일부터 '화순 적벽 버스투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적벽투어는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물놀이, 창랑적벽을 포함하는 등 관광코스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적벽 버스투어는 오는 11월 25일까지 매주 수, 토, 일요일 하루 2회(오전 9시, 오후 1시30분) 하니움 주차장에서 출발해 이서커뮤니티센터~창랑적벽~물놀이적벽~포토존~망향정(노루목, 보산적벽)~규남박물관(이서느티나무)을 왕복 운행한다.

버스는 하루 6대(30인승)가 투입되며 1회 기준 3시간 30분이 소요되며 교통비 1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화순 적벽과 운주사 등을 둘러보는 여행상품인 '콩닥콩닥 설렘화순' 버스투어도 오는 3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행한다.

'콩닥콩닥 설렘 화순 버스투어'는 광주 송정역에서 출발해 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로컬푸드 직매장~고인돌유적지~조광조유배지~창랑적벽~물놀이적벽~망향정~이용대체육관~광주송정역을 경유한다. /화순=나성종기자 nsj@

화순군 '군민과의 행복 공감 대화' 시작

동·남면 주민 애로·민원 청취

화순군이 틀에 박힌 형식 대신, 토론행태의 군민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구중군 군수는 지난 16일 동·남면을 시작으로 올해 '군민과의 행복 공감대화'에 들어갔다.

이번 공감대화는 군민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기존 메시지를 전달하던 방식을 탈피했다. 또 사회자 없이 군수가 직접 대화를 주도하면서 토론행태로 진행했다. 동면 주민들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서

성 저수지 경관도로 가드레일 개선, 돌레길 조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면 주민들도 교량 보수를 비롯해 마을 안길 포장, 마을 진입로 확장, 농수로 준설 등을 건의했으며 화순군은 현장방문을 거쳐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구중군 군수는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17일 이양·청풍면, 18일 북면·이서면, 23일 도암·춘양면, 24일 동북·한천면, 25일 능주·도곡면, 26일 화순읍 순으로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장성군 지난해 계약심사 예산 10억 절감

장성군이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 195건 500억1000만원에 대해 사업발주 전 계약심사를 시행해 10억7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항목별 절감액은 공사 115건 9억7400만원, 용역 47건 8800만원, 물품 33건

1700만원 등이다.

장성군은 계약에 앞서 원가 계산의 적정성과 설계 낭비 요소 여부 등을 심사해 예산 절감과 시공품질 향상을 꾀하고 또 다른 하천인 평림천 생태계 개선을 추진하면서다.

장성군은 경험 풍부한 공무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공법을 적용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한 덕분에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장성군 황룡강 이어 평림천 생태계 복원

2021년까지 200억원 투입

장성군이 평림천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황룡강을 '흙·맛·맛'이 여우러지는 지역 대표적 명소로 키운데 이어 또 다른 하천인 평림천 생태계 개선을 추진하면서다.

장성군은 오는 2021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평림천 생태계를 회복하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평림천 일대는 평림댐 건설 뒤 유량 감소와 육역화 현상 등으로 생태계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육역화 현상은 주변 농경지에서 유입된 농약·비료 성분 등으로 토사 및 부유

물이 퇴적지를 만들고 점차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보가 설치돼 물길의 자연스러운 연결도 끊어지면서 수달, 삼, 원앙 등이 서식하는 하천임에도 어류생물자수가 낮은 실정이다.

평림천 일대는 평림댐 건설 후 유량 감소와 육역화 현상 등으로 생태계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친수한 하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친수한 하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9억 3000만원 (평당 18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필
- 매매 - 8억 5000만 (평당 60만원)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60억, 매매 - 협의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600만원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4200만원

비금도, 팻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 분할매매가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토지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1억 600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300만원 임대가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